

베트남 강타 '박항서 매직' 동남아 축구까지 점령했다

축구 변방서 지도력 뽐내...제2의 축구인생 활짝



베트남 하노이 마이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결승전 최종 2차전에서 베트남을 우승으로 이끈 박항서 감독이 우승컵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 경기에서 전반 6분 안독의 결승골로 1-0으로 말레이시아를 누르고 승리하며 10년 만에 이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박항서 매직’이 베트남 나아가 동남아를 강타했다. 베트남 축구가 10년 만에 동남아 국가대항전인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15일(한국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마이딘 스타디움에서 열린 말레이시아와의 2018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결승 2차전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지난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원정 1차전에서 2-2로 비겼던 베트남은 최종전적 1승1무 1·2차전 합계 3-2로 우위를 점하면서 정상 탈환에 성공했다. 이로써 베트남은 2008년 우승 이후 10년 만에 이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통산 두 번째 우승이다.

그야말로 ‘박항서 매직’이다. 지난해 10월 베트남 사령탑을 맡아 약 1년 만인 지난달 베트남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을 100위 이내(베트남 100위)로 올려놨다. 베트남이 100위 이내에 든 것은 7년 만이다. 2018년은 박 감독과 베트남의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월 베트남은 박 감독을 앞세워 아시아의 중심에 우뚝 섰다. 베트남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사상 처음이다. 우즈베키스탄과의 결승에서 연장까지 가는 대접전 끝에 1-2로 패했지만 달라진 면모에 아시아가 모두

놀랐다. 동남아시아 국가가 AFC 주관 대륙대회에서 결승에 오른 건 올해 1월 베트남이 처음이다.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승부욕 끈질김으로 더 이상 변방이 아님을 입증했다. 축구 변방에서 지도력을 뽐낸 박 감독은 베트남의 영웅이 됐다. 베트남 정부는 박 감독의 공로를 인정해 3급 노동훈장을 수여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베트남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4강에 오르는 상승세를 이었다. 이 역시 최하다. 결승 문턱에서 한국의 벽을 넘지 못했고 동메달결정전에서 아쉽게 패했지만 베트남 돌풍의 여운이 상당했다. 조별리그에서 강호 일본 등을 상대로 3전 전승을 거뒀고 토너먼트에서 비레인, 시리아를 차례로 꺾고 4강에 올랐다. 이어 베트남의 숙원이었던 스즈키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동남아의 강호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 1988년 현역 선수에서 은퇴한 박 감독은 1996년까지 LG 치타스에서 코치로 있다가 1997년 수원 삼성으로 옮겼다. 2000년 11월 한국 대표팀 수석코치가 된 그는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을 보좌하며 4강 신화를 도왔다. 이후 포항 스틸러스 경남FC, 전남 드래곤즈, 상주 상무, 창원시청 등에서 지도자 길을 걸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베트남에서 지도자로서 제2의 축구인생이 활짝 핀 셈이다. 박 감독과 베트남은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서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란, 이라크, 예멘과 D조에 편성됐다.

박항서의 베트남, 내년 3월 벤투화와 평가전

박항서(59)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동남아 축구 국가대항전인 스즈키컵에서 우승하면서 내년 3월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과 A매치 평가전을 갖게 됐다.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15일(한국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마이딘 스타디움에서 열린 말레이시아와의 2018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결승 2차전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지난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원정 1차전에서 2-2로 비겼던 베트남은 최종전적 1승1무 1·2차전 합계 3-2로 우위를 점하면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정상에 탈환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내년 3월 A매치 기간에 스즈키컵 우승팀과

맞대결을 펼친다”고 전했다. 동아시아축구연맹(EAFF)과 동남아시아축구연맹(AFF)이 지난해 동맹팀인 한국과 올해 AFF 스즈키컵 우승팀이 내년 3월 26일 경기를 갖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경기는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이다. 명칭은 2019 AFF-EAFF 챔피언스 트로피다. 두 연맹의 대회 우승팀의 경기는 향후에도 2년마다 지역을 번갈아가며 개최될 예정이다.

안치홍 “개인적 목표, 한 시즌 동안 꾸준히 활약”

내년 생애 첫 FA...“올해 성적 잘 나와 기분 좋아”



안치홍은 2018년 생애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성적이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크게 아쉬움이 없는 시즌이었다. 안치홍은 올해 130경기에서 타율 3할4푼2리, 23홈런, 118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955의 성적을 냈다. 출루율은 3할9푼2리, 장타율은 0.563으로 모두 수준급이었다. 중앙 내야수가 이 정도 공격 성적을 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득점권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기며 총 118타점을 쓸어 담았다. 그런 안치홍은 2018년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도 무난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체 유효표 349표 중 306표(87.7%)를 얻어 2위 오재원(투수·27표)을 큰 차이로 제쳤

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골든글러브 수상이다.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황금장갑이기도 했다. 물론 기본 일이다. 안치홍은 “올해 성적이 잘 나와서 기분이 좋다. 한편으로는 내년에도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든다”고 했다. 그래서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11월 말까지 광주에서 차분히 팀 훈련에 참가했다. 지금은 쉬는 시기지만, 마냥 쉬는 것이 아니라 웨이트 트레이닝 등으로 차분히 몸을 만든다는 생각이다. 내년 1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캠프에 맞춰 컨디션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담감도 있지만, 최대한 털어내고 임한다는 생각이다. 안치홍

은 “개인적으로 중요한 시즌이라고 해서 너무 더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봤다”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개인적인 목표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한 시즌 동안 꾸준히 활약하는 것이다. 안치홍은 “엔트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며 한 해를 보내고 싶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안치홍은 내년 시즌을 정상적으로 소화하면 생애 첫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는다. 이미 안치홍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치솟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안치홍은 FA에 대한 생각보다는 팀 성적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팀 성적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팀 성적이 결국 자신의 가치를 좌우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치홍은 팀 성적에 대한 이야기에 잠시 끊어지더니 이내 다부지게 입을 열었다. 안치홍은 “2009년에 우승하고 2010년에 포스트시즌에 못 갔다. 당시에는 어려서 크게 와 닿지가 않았다”고 떠올리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크게 느껴지더라”고 말했다. 지난해 골든글러브 행사에 참가한 동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올해는 자신 하나라는 점에서 초라함도 적잖이 느꼈다. 결국 팀이 잘 돼야 선수의 가치도 높아진다. 안치홍은 “팀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각오와 함께 2019년을 시작한다.

엄천호·정재원, 빙속 월드컵 4차 대회 매스스타트 금·은

女 김보름, 결승서 캐나다 선수에 걸려 넘어져

엄천호(26·스포츠포토)와 정재원(17·동북고)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매스스타트에서 나란히 금,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엄천호는 1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켄베인에서 열린 2018~2019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4차 대회 남자 매스스타트 결승에서 8분11초220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인 엄천호가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대회 매스스타트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엄천호는 부상으로 고전하다가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했고, 올 시즌 태극마크를 다는데 성공했다. 엄천호는 월드컵 1차 대회에서 동메달, 2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까지 수확, 이 종목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올 시즌 월드컵 시리즈에서 세 차례 열린 매스스타트에서 모두 메달을 쓸어들었다. 월드컵 3차 대회에서는 매스스타트가 열리지 않았다. 엄천호는 랭킹 포인트를 475점으로 늘려 올 시즌 남자 매스스타트 월드컵 랭킹에서 1위로 올라섰다.

장거리 유망주로 2018 평창동계 올림픽에서 팀추월 은메달을 목에 건 정재원은 8분11초350을 기록, 엄천호에 0.13초 차로 밀려 은메달을 수확했다. 16비키를 도는 매스스타트에서 엄천호와 정재원은 9번째 바퀴까지 하위권에서 페이스를 조절했고, 10번째 바퀴에서 선두권으로 치고 나와 1, 2위로 끝나는 데 성공했다. 여자 매스스타트의 간판 김보름(25·강원도청)은 결승에서 8분24초830의 기록으로 15위에 머물렀다. 안정적으로 레이스를 이어가며 금메달을 노렸던 김보름은 마지막 바퀴에서 이바나 블통맹(캐나다)에 걸려 넘어지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블통맹은 실격했다.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경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담 구레군은 지리산자연, 갈매나무, 화엄사, 절간길, 운조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북아재-기단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